

# ‘홍일점’ 손영숙 “링크 위에선 여자라고 다를 견 없다”



카누 선수로 활동하다 올해 전남 아이스하키팀 합류  
“혼자 하던 종목 하다 단체 훈련 하니 즐겁고 새로워”



지난 28일 강원도 강릉하키센터 아이스링크,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홍일점’이 있었다.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혼성 아이스하키 OPEN(선수부) 본선 8강에서 만난 손영숙은 올해 전남 아이스하키팀에 합류한 여자 선수이다.

손영숙은 “여자라고 다를 견 없다. 우리는 모두 선수다. 훈련도 똑같이 받고, 팀 분위기도 정말 좋다”고 웃었다.

손영숙의 주 종목은 하계 종목인 카누다. 카누 선수로 활동한 지는 올해로 6년째로 그는 이번 겨울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손영숙은 “동계 종목을 하나 해보고 싶어서 찾고 있었다”며 “그다음 같은 카누 선수인 신경문 선수가 먼저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었고,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권유 받은 뒤 그는 테스트를 받았고, 곧바로 팀에 합류했다.

시작은 말 그대로 ‘초고속’이었다.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지는 한 달 반 남짓, 훈련과 실전을 합쳐도 링크에서 오른 건 10번 정도라고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재밌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남 팀은 8강 문턱에서 멈췄다.

경기도에 3-8로 패하며 탈락했다.

손영숙은 결과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경기에 대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결과는 받아들여야지 계속 ‘아쉬운 장면’만 불잡고 있진 않는다”고 말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아직 ‘초보’인 손영숙에게는 모든 게 즐겁다.

그는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서, 지면 지는 대로



지난 28일 강원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혼성 아이스하키 OPEN(선수부) 본선 8강에서 전남이 경기도와의 맞대결에서 3-8로 패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즐겁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팀에 대한 애정이다. 개인 종목을 오래 해온 손영숙에게 단체 종목의 매력은 함께다.

그는 “카누는 훈련하려 가면 혼자 갔다가 혼자 돌 아오고, 숙소도 혼자 들어가고 그런 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모여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즐겁고,

같이 있으면 더 운동하고 싶어진다”고 전했다.

동계 종목에 대해 그는 새로운 종목, 새로운 계절에 망설임이 없었다.

하계와 달리 동계는 힘들 것 같다는 우려에 손영숙은 “저는 적응을 잘한다”라고 단번에 답했다.

그가 아이스하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가

만히 앉아서 하는 정적인 종목은 잘 안 맞는다”며 “움직이고 부딪히고, 몸을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홍일점’이라는 시선에도 그는 혼들림이 없다.

손영숙은 “팀원들이 나를 특별히 다르게 대하는 것도 없고, 나 역시 불편함을 느낄 일도 없다”며 “가족 같은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한 달 그리고 10번 남짓의 짧은 경험 속에서도 손영숙은 이미 링크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통=글·사진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 ‘빙판 위의 체스’ 컬링…한국, ‘영미 열풍’ 넘어 금빛 도전



컬링

‘세계 3위’ 경기도청 금 사냥나서  
김선영·정영석 조 믹스더블 출전

컬링은 치열한 수싸움으로 ‘빙판 위의 체스’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빙판 위의 땅따먹기’ 혹은 ‘알까기’로 불릴 만도 하다.

‘하우스’라고 불리는 과녁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에 어느 팀의 스톤이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위치했는지를 점수로 따지는 컬링 게임 방식상 끊임없이 서로의 스�顿을 쳐내고 밀어내기 때문이다.

한 엔드에 양 팀의 리드, 세컨드, 서드, 포스가 번갈아 2개씩 스톤을 던진다. 따라서 각 팀은 총 8개의 스�顿을 던진다.

10엔드까지 경기를 치러 더 많은 점수를 낸 팀이 승리한다.

보통 스킵(주장)은 서드나 포스를 맡으며, 각 팀은 스킵이 세우는 엔드별 전략에 따라 경기를 운영한다.

먼저 투구자가 스킵의 지시에 따라 20kg에 달하는 무거운 스톤에 회전을 줘 정확하게 던지면 브루(벗자루)을 든 두 명의 선수가 스톤이 나아가는 방향의 빙판을 밟는다.

스위핑에 의해 얼음 위 폐불(얼어붙은 물방울)이 녹아 스톤과 빙판의 마찰이 줄면 스톤의 진행 속도와 궤적, 거리가 모두 달라진다.

이렇게 스킵의 치밀한 전략과 투구자의 정확한 힘 조절, 스위퍼의 섬세하고 파워풀한 스위핑까지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샷이 만들어진다.

상대 팀 스톤을 하우스 밖으로 밀어내거나 상대 팀보다 버튼에 더 가깝게 스�顿을 포진하는 등 샷

하나하나가 쌓여 한 엔드의 점수가 된다.

나중에 스톤을 던지는 후공 팀이 점수 획득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후공 팀은 무조건 ‘2점 이상’을 내는 게 목표고, 선공 팀은 실점을 ‘1점’으로 틀어막는 게 기본 전술이다.

후공 팀이 점수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선공 팀이 점수를 내면 ‘스틸’(steal)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직전 엔드에 점수를 낸 팀이 다음 엔드에서는 선공한다.

컬링은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종목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치러졌다.

이후 1932년 레이크플레이스 대회, 1988년 캐나다 대회, 1992년 알버타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대중과 만났고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정식 종목이 됐다.

믹스더블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컬링에 걸린 금메달은 남자 4인조, 여자 4인조, 믹스더블 3개다.

한국 컬링은 2014 소치 대회 여자 4인조 부문에 경기도청이 출전하며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여자 4인조는 이후 2018 평창 대회 ‘팀킴’ 강릉 시청이 ‘영미 열풍’을 일으키며 은메달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고, 2022 베이징 대회에서 팀킴은 8위를 기록했다.

한국 컬링은 이번 대회 여자 4인조에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이, 믹스더블에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경기도청) 조가 각각 출전한다.

세계랭킹 3위 경기도청은 한국 컬링 최초 올림픽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믹스더블의 김선영과 정영석은 역대 처음으로 믹스더블 본선 진출 티켓을 자력으로 따냈다.

특히 팀킴의 일원이기도 한 김선영은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2026 밀라노 대회에도 출전하며 한국 컬링 선수 처음으로 3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나선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컬링 믹스더블에 출전하는 정영석이 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네르 vs 조코비치

호주오픈 테니스 4강서 격돌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1억1150만 호주달러·약 1100억원) 남자 단식 4강은 세계 랭킹 1~4위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3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남자 단식 준결승은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알렉산더 츠 베레프(3위·독일), 안니크 신네르(2위·이탈리아)-노바크 조코비치(4위·세르비아)의 대결로 펼쳐진다.

팬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신·구 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신네르와 조코비치 경기에 더 쏠린다.

신네르가 2024년과 2025년 호주오픈 챔피언이고, 조코비치는 2023년까지 호주오픈에서만 10번 우승했다. 2001년생 신네르와 1987년생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 5경기를 치르는 동안 둘 다 ‘행운의 승리’를 따냈다.

신네르는 지난 24일 3회전에서 엘리엇 스피지리(85위·미국)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1로 맞선 3세트에서 먼저 브레이크를 허용해 1-3으로 끌려가던 신네르는 이때 실외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어 코트 지붕을 닫느라 경기가 약 10분간 중단되면서 체력을 만회할 시간을 벌었다.

경기 재개 후 곧바로 상대 서브 게임을 따내며 3세트를 결승 6-4로 이긴 신네르는 3세트 종료 후 다시 ‘컬링 브레이크’ 10분이 적용되면서 털썩 위기를 넘겼다.

조코비치는 신네르보다 더 운이 좋았다.

16강에서 만나기도 되었던 야쿠프 멘시크(17위·체코)가 부상으로 기권해 힘들지 않고 8강에 올랐으며 8강에서는 로렌초 무세티(5위·이탈리아)에게 세트 스코어 0-2로 끌려가다가 상대 다리 부상으로 또 기권승을 거뒀다.

신네르와 조코비치의 상대 전적에서는 신네르가 최근 5연승을 거두며 6승 4패로 앞서 있다.

2024년 이 대회 4강에서 신네르가 3-1(6-1 6-2 6-7(6-8) 6-3)로 이겼고, 최근 3경기에서는 조코비치가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줄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음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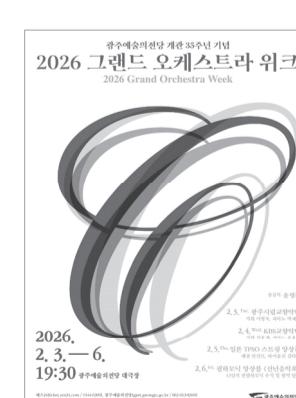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페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